

서울 YWCA 2022 7/8 vol.619



서울YWCA 창립 100주년 윤유선 홍보대사 위촉

2022. 6. 14.



2006. 8. 6



1차 피스 인 아시아 <여대생의 눈으로 본 아시아의 여성인권, 2006. 8. 6-17>

피스 인 아시아

서울Y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9회에 걸쳐 태국 - 미얀마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난민여성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피스 인 아시아 Peace in Asia'를 전개했다.
태국-미얀마 국경 부근 매홍손 지역에 위치한 난민촌을 방문하여
아시아 난민인권문제를 이해하고 난민 여성과 교육·봉사로 교류하며 글로벌 나눔과 연대를 실천했다.



난민여학교에서(2013)



9차 피스 인 아시아(2016)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7월 공동기도

하나님, 도무지 실 줄 모르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
피조세계에도 폭력적일 때가 많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원초적 복이지만, 그 일이 고역이 되기도 합니다.
삼복더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순응하며 살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숨 돌릴 사이 없이 질주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 속도를 조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8월 공동기도

하나님, 무더위에 지쳐 누적거리며 살다 보니
문득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 그늘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아 시원함을 안겨주듯,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며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우리와 만난 이들이 그런 행복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아멘

- 4 나를 살리는 말씀
말씀에 의지하는 나의 모든 삶
당신은 언제 사랑을 느껴보셨나요?
- 6 현장 속으로
단백질보충제 비교정보사업
창립 100주년 회원권기대회
배우 윤유선 홍보대사 위촉
- 11 미디어 모니터링
시사·보도 프로그램 속 보이지 않는 여성들
- 12 환경과 여성
타락한 인류의 현주소
- 14 영화와 삶
영화 <빵과 장미>
- 16 서울Y 소식
5·6월 뉴스
7·8월 행사안내
7·8월 캘린더
- 22 내일빛 캠페인
- 26 알림터
- 30 후원 소식
- 34 창립 100년 비전
- 36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박에스더 한국 여성운동의 산파

<서울YWCA> 2022년 7·8월호
통권 제619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2년 7월 1일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김양선 편집위원장 배은경
편집위원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 민혜경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말씀에 의지하는 나의 모든 삶



이선미
회원활동위원회 위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편 119:105)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느 때 어디에서든지 늘 말씀과 함께 살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새 하루를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사편 5:3)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직장에 출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어 업무를 시작한다. ‘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임함심을 기억하며 일하게 하소서(고린도전서 3:16). 온종일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 주세요’ 어려운 일을 당한 동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해주세요’(신명기 31:6) 진심으로 중보기도를 한다. 취준생으로 두 해 넘도록 고생하고 있는 조카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함께 선물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기 23:10) ‘사랑한다 너를 위해 이모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

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세수하며 바라보는 나의 얼굴이 오늘따라 주름으로 가득해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걸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린도후서 4:16)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나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구나 생각한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드리는 가정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서 깊은 은혜를 받는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23:1)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 이십니다’(시편 18:2)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단잠에 빠진다.

나의 평범한 일상을 돌아보니 나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등이요 빛으로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며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 나가게 하신다. 때로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에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으로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심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간다. ♪



당신은 언제 사랑을 느껴보셨나요?



정민지
이화미디어고 2년
Y-틴 협의회 서기
온새미로 Y-틴 회장

온 동네가 봄 내음을 풍기고 벚꽃나무로 가득 찬 봄을 만끽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푸릇푸릇 한 이파리들이 반기는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은 청소년의 싱그러움과 역동성을 담아있는 계절 같습니다. 여름의 추억들은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다 미화되어 결국 아름다운 계절로 다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신앙과 믿음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한 어린 시절, 첫 영성체 교리를 통해 알게 된 말씀입니다. 뜻은 잘 몰랐지만, 지금까지 계속 곁에 두며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문점이 생길 때도 많았습니다.

사랑이란 게 대체 뭐길래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내는지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과연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정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 대한 해답을 머지않아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랑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심지어 반려동물과 주인간의 사랑까지 우리 주변은 온통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부모님께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늦게까지 학원 수업을 받고 오는 저를 위해 밥을 따로 차려놓고 기다려주실 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 주실 때 등 그럴 때마다 고스란히 느껴지는 부모님의 사랑이 요새 저를 가장 많이 일으켜 세웁니다. 부모님께서 언제나 저를 믿고 제가 하는 일들을 믿어주시며, 다른 사람은 저를 믿지 않아도, 심지어 제가 저 자신을 믿지 않아도 저희 부모님만은 저를 항상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키고 제 이야기를 들으며 힘들 때 존재만으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실 때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가 차오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사랑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만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눈다면, 이 땅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서울Y와 Y-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단백질보충제, '아미노산스코어'의 큰 차이 없어 영양성분, 가격 비교 등 꼼꼼한 소비자 선택 필요



분석기간

2021년 7월 22일 - 10월 8일

시험평가 제품

- **건강기능식품** : 마이밀 뉴프로틴 플레인, 파스퇴르 닥터액티브, 코어프로틴 프로, 세브란스케어 활력단백질,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 라이프프로틴
- **일반식품** : 초유 프로틴, 산양유 단백질 분말, 헬시허그 초유프로틴, 리얼메디3W초유, 단백질프로틴 마스터, 산양유 단백질, 멀티산양유 단백질 분말

코로나19로 건강식품과 면역력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지정하면서 '단백질'이 식품업계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다양한 형태와 맛을 보유한 단백질 보충 제품이 잇따라 출시됨에 따라 품질, 영양평가, 경제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비교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Y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국내 브랜드 중 12개 제품(건강기능식품 6개, 일반식품 6개)을 대상으로 아미노산스코어, 영양평가,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 Y 정리 김보민 생명운동팀 간사

결과

● 아미노산스코어

건강기능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시험법에 따른 평가에서 12개 제품 모두 아미노산스코어 85 이상으로 단백질보충제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

* 단백질 제품은 '아미노산스코어가 85 이상'이어야함(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1-65호)

● 영양평가

9대 영양성분의 시험·검사 결과 대부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했으나, 당류와 콜레스테롤에서는 초유 프로틴(롯데제과)이, 조지방과 포화지방에서는 리얼메디3W초유단백질(제이더블유생활건강)이 표시치의 120%를 초과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두 제품은 본 시험결과에서 표시치 허용오차를 초과했으나 사업자가 소명(표시기



준 적합 시험성적서 제출)했고, 향후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 안전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65호)에 따라 이물, 총아플라톡신, 대장균, 대장균군 시험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시험결과 시험대상 제품 모두 불검출이거나 기준*에 적합했다.

* 총아플라톡신: 15.0 이하

* 이물(금속성): 식품 중 10.0 mg/kg 이하, 크기 2mm 미만

● 경제성

건강기능식품 1회 섭취량 기준 가격의 평균은 4,284원으로 나타났고 최소 1,890원에서 최대 6,125원으로 4,235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 일반식품 1회 섭취량 기준 가격의 평균은 3,849원으로, 최소 940원에서 최대 6,428원으로 5,488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

【 단백질보충제 시험 결과표 】 판매사 가나다순

구분	제품명	판매사	용량 (g)	1회 섭취량 (g)	아미노산 스코어 ¹⁾	당류 (g)	열량 (kcal)	탄수화물 (g)	단백질 (g)	지방 (g)	나트륨 (g)	기능성분 (영양강조성분)
건강 기능 식품	마이밀 뉴프로틴 플레인	대상라이프 사이언스(주)	340	34	100	3.6	144.2	6.3	20.3	4.1	157.5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B6, 비타민D, 나이아신
	파스퇴르 닥터액티브	롯데푸드(주)	288	36	103	6.8	143.7	14.8	17.8	1.4	46.8	마그네슘, 아연, 망간, 셀렌,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B1, 비타민B6
	코어프로틴 프로	매일유업(주)	304	38	136	6.2	173.0	10.1	18.8	6.3	176.3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B1, 비타민B6, 비타민D, 판토텐산
	세브란스케어 활력단백질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288	36	116	2.0	139	14.2	16.5	1.7	189.5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B6, 비타민D, 프락토올리고당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	일동후디스(주)	304	38	107	5.2	155.5	12.5	18.3	3.5	122.4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B6, 비타민D, 판토텐산, 프락토올리고당
일반 식품	라이프프로틴	쥬에이플 네이처	280	40	95	3.6	155.7	12.4	22.6	1.6	154.6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B6, 비타민D
	초유 프로틴	롯데제과(주)	280	40	109	8.8	155.2	15.8	19.9	1.3	58.8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E,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B6
	산양유 단백질 분말	WATO	400	30	99	4.9	119.3	11.6	13.9	1.8	76.4	칼슘, 철, 비타민E, 비타민C, 나이아신
	헬시허그 초유프로틴	쥬유림 테에이치씨	280	40	93	6.2	159.6	13.8	21.4	2.0	60.3	칼슘, 철, 아연,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오틴, 판토텐산, 나이아신
	리얼메디3W초유 단백질 프로틴 마스터	제이더블유 생활건강(주)	280	40	92	7.3	156.2	16.7	19.7	1.1	60.7	칼슘, 철, 아연,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엽산, 나이아신
	산양유 단백질	천연채	200	5-10	106	1.1	38.6	2.8	6.2	0.2	38.7	비타민C
	멀티산양유 단백질 분말	주한국 생활건강	240	34	106	1.1	131.3	8.4	21.9	1.0	204.4	칼슘, 철, 아연,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오틴, 엽산, 판토텐산, 나이아신

1) 단백질 제품 요건 충족 기준: 아미노산스코어 85 이상

* 각 제품표기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환산

* 제품에 따라 단백질 외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함유

기억하GO 나아가GO

서울YWCA 창립 100주년 회원걷기대회

2000년부터 해마다 봄이 되면 회원·시민과 함께하는 서울YWCA 걷기대회! 지난해에 올해도 온택트로 5월 14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었다. 창립 100주년의 해를 맞아 '기억하GO 나아가GO'를 주제로 진행된 2022년 걷기대회에는 사진 신청을 통해 271팀(716명)이 참여를 약속했다. 참가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걸으며 생기 넘치는 봄을 만끽했다. 특별히 서울Y가 시작된 '승동교회'(인사동), 서대문 시대의 상징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관 터'(새문안로)를 찾아가 보며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자율 기부로 모인 후원금은 창립 100주년 '내일빛' 기금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쓰일 예정이다. 함께해준 모든 회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걷기대회 참여 인증샷을 소개한다.



YWCA도배사모임 레전드는 살아있다



최명희 서울Y 100년을 선물로 주신 주님! 자연의 꽃과 나무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걷는 이 길이 참 행복합니다



문경혜 뛰자! 날자! 세상을 바꾸자! (승동교회)



연수국민체력100 연수국민체력100! 서울YWCA 100주년! 축하드립니다



송창은 · 송창을 저희도 세상을 바꾸는데 함께할게요 ^^



강남청소년수련관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



변진숙 공기 좋은 북서울꿈의숲에서 팬데믹이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화이팅!



허승아 여성을 바라보며 걸어온 YWCA



강미영 100년 축하 함께 걸으며 100년 해로를 ^^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오늘의 차림메뉴는 경춘선 숲길 맑은 공기, 그리고 건강한 걷기!

배우 윤유선 창립 100주년 기념 홍보대사로 위촉



이유림 회장이 윤유선 홍보대사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 배우 윤유선 씨를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서울YWCA 창립 100주년 기념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서울Y는 6월 14일 서울YWCA회관 마루에서 위촉식을 열고 창립 100주년 기념 홍보대사로 윤유선 씨를 임명했다. 아역 시절부터 지금까지 따뜻하고 선한 이미지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배우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며 본이 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서울YWCA 창립 100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역사 깊은 기관의 홍보대사로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일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윤유선 홍보대사는 위촉식에 참석한 이사와 실무자 앞에서 환한 미소로 감사와 소감을 전했다. 윤 홍보대사와 손잡고 서울Y가 새로운 100년에도 여성과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를 소망하며, 많은 회원들 또한 기도와 응원으로 힘을 더해 주기를 두 손 모은다.Y

서울YWCA 창립 100주년 홍보대사 위촉식

2022. 6. 14



시사·보도 프로그램 속 보이지 않는 여성들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이슈와 쟁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는 공론의 장이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올해 3월에 방송된 25개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남성이 261명 출연하는 동안 여성은 66명 출연했다.

여성이 처한 현실에 남성의 목소리만

지난 3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젠더 관련 정책과 젠더 이슈에 대한 토론은 대선 기간과 겹쳐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다. <100분 토론>(MBC, 951회), <판도라>(MBN, 264회) 등에서는 중년 남성 패널만이 등장해 다양한 사회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 상반된 입장을 가진 패널 간 토론에서도 한국 사회 소수자로서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출연자의 성비 불균형은 특정 의견을 과대

대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치 및 전문 분야에 남성만이 적합하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기에 출연진과 제작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연시킬 여성 전문가가 없다?

방송에서 남성 전문가들이 더 많은 이유는 여성 전문가가 없기 때문일까? 실제 국내 대학 전임 교원의 26%, 법조인의 27.1%가 여성이다. 그러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여성 전문가보다 남성 전문가가 5배 더 많이 등장했다. 여성 전문가가 남성 전문가에 비해 종사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영역에서든 여성 전문가는 존재한다. 언론이 적극적으로 여성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남성 전문가를 그만 섭외하라’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출연하는 것은 관습에 가깝다.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패널들은 내용이 뻔하고, 신선함이 부족해도 ‘안전한 방송’을 위해 계속 섭외된다. 대선 기간 중 더 많은 남성 출연자들이 등장한 것은 평소 출연진 섭외 시 성비나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았던 관행이 누적된 결과다. 출연자의 성비불균형 문제는 방송 제작진과 주요 언론사들이 ‘여성 전문가’ 혹은 ‘여성 정치인’들을 지속적으로 인터뷰하거나 패널로 섭외해왔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위. <판도라>(MBN), 남성 진행자, 남성 패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래. <질문하는 기자들Q>(KBS1), 여성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언론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질문하는 기자들Q>(KBS, 39회), <PD수첩>(MBC, 1322회) 등에서는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언론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언론이 야기한 여성 혐오와 젠더 이슈에 대한 왜곡을 객관적 근거를 들어 바로 잡았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이 주장하는 성차별적 의견이나 발언에 대해서 진행자의 정정 발언, 제작진의 자막 편집 등을 통해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내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Y

정리 이지은 여성운동팀 활동가

* 모니터링 대상: TV 7개 채널(지상파, 종합편성채널), 25개 프로그램, 각 2회분, 총 50회
* 모니터링 기간: 2022년 3월 2-16일

타락한 인류의 현주소



구미정
기독교 인문학자
송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초빙교수
이은교회 목사

창세기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한다. 그 속성을 사람도 갖게 되었다. 이게 어째서 타락인가? 천지창조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좋다'고 평가하셨다. 히브리어 '토브'는 '좋다'는 뜻 말고도 '선하다, 착하다, 아름답다' 등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 창세기 1장에 이 단어가 일곱 차례 기록되었다는 건, 그리고 '7'이 거룩한 수임을 떠올리면, 좋다-싫다, 선하다-악하다, 착하다-나쁘다, 아름답다-추하다는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눈에는 천지와 그 안에 깃든 만물이 모두 좋게만 보였다. 온통(전체)이신 하나님이 온갖 날동(개체)을 다 품었으니, 왜 안 그럴겠는가?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은 마땅히 선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것 하나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라인’을 잘 타야 성공한다?

사람의 눈은 다르다. 판단 기준이 철저히 자기 마음이다. 자기와 '코드'가 맞아야 좋지, 그렇지 않으면 싫다. 개별 수준에서 '코드'에는 취향이나 성격 따위가 포함되지만, 단체나 집단으로 가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공직자를 뽑는데 '코드' 인사가 난무한다는 말에는 파벌주의의 혐의가 짙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생물학의 명제가 진짜 사회에서는 어느 계파에든 속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말로 통용될 때가 많다. 하여 '라인'을 잘 타야 성공한다는 속설이 진리인 양 유통되는 게 인간 사회 아닌가? 코드든 라인이든 다 '줄'이라는 뜻이다. 이 줄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좋은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줄이 닿아 있어야 '좋다'. 가능한 모든 인맥을 동원해 어떻게든 최고 권력자에게 줄을 댈 수만 있다면 대박이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 말이 국제 표준어로, 미국 돈이 국제 공용통화로 대접받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눈에 '악의 축'으로 찍힌 나라

들의 운명을 보며 어느 나라가 감히 반기를 들 수 있겠는가? 미국이 절대 선인 양 군림하는 세상에서는 미국 쪽으로 줄을 서야 살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미국의 관점에서 우방국과 적대국을 나누는 기준이 철저히 자국의 이익이라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도,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아름다울 미(美)'자를 붙여 부르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착한 여자 vs 나쁜 남자

착하다는 말의 상태도 심각하다. 우리 사회에서 '착한'이라는 그림씨(형용사)가 주로 '여자'에 연결되는 반면, '나쁜'이라는 그림씨는 '남자'와 어울려 사용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때 착하다-나쁘다는 판단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다. '몸매가 착하다'는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떠도는 현상을 생각해 보라. '착한 여자'와 '나쁜 남자'는 주류 사회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 착한 여자는 가부장제에 순응한 여자다. 남자보다 아래에, 그리고 뒤에 조용히 있으면서 남자(또는 지배질서)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해야 착한 여자다. 남자보다 위에 있거나 앞에 있으면서 나서기 좋아하는 여자는 마녀사냥감이 되기 쉽다. 오죽하면 '맨스플레인'(mansplain)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을까?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안다 한들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남자(man)가 설명(explain)해줘야 한다. 여자의 미덕은 남자의 설명에 고개만 끄덕이는 거다. 그것도 살짝 웃으면서. '나쁜 남자'는 사정이 다르다. 가부장적 규범을 거스르는 남자가 나쁜 남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착하다-나쁘다는 판단이 주류 가부장제 사회의 가치를 반영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쁜 남자는 여자의 경우와 정반대로 가부장적 기준에 들어맞는, 나아가 그 기준을 강화한 경우에 적용된다. 여자의 곁에 맞춰주지 않는 남자, 여자의 사랑을 외면한 채 일부러 툭툭거리는 남자, 오만함과 자부심이 가득 찬 남자, '센 척'이 몸에

밴 남자, 그런 나쁜 남자는 지탄받기는커녕 매력적인 인물로 추앙받는다.

인간의 첫 번째 범죄, 형제살해

성서가 말하는 타락이 바로 그거다. 선악과를 먹은 이상, 어떤 인간도 주류 사회의 가치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마치 금붕어가 수족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를 둘러싼 자기장에 포획돼 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그 자기장을 형성해온 발자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서는 이 과정을 가인(또는 카인)을 통해 보여준다. 타락 이후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범죄가 다름 아닌 '형제살해'임을 폭로하면서, 이후 전개될 모든 투쟁과 전쟁 역시 결국은 '피붙이 살해'로 수렴된다는 진실을 묵묵히 증언한다.

가인이 "밭을 가는 농부"(창세기 4:2)라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땅을 갈 사람"(창세기 2:5)이 필요해서였다. '땅'이 공유지라면 '밭'은 사유지다. 이기심과 욕심에 발목이 잡힌 인간은 소유의 충동을 벗어나기 어렵다. 밭을 갈면서(회사나 조직에 속해 일하면서) 공익(公益)을 생각하는 경우란 흔치 않다. 대개는 사익(私益)에 눈이 멀기 마련이다. 나아가 땅이 공유지로 남아 있는 상태를 못 견디는 게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다.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유를 뜻한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아니, 그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 건 어머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자. 하와가 자신의 맏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었다. '내 것'이라는 뜻이다. 가부장적 질서가 팽배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자리에 있는 여성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에 있다. 갑의 '갑질'이 문제인 만큼, 을의 '을질'도 문제다. (다음호에 5편이 이어집니다)

* 창립 100년을 맞아 YWCA 정체성인 기독교성에 주목하고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신학과 윤리를 다시 바라보며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모색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 본문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구미정 교수는 일상의 소소한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찾기를 즐긴다. 진지하고 심각한 신학 풍토에 자유롭게 경쾌한 이야기로 생명을 수놓아가는 기독교 인문학자. 지은 책으로는 「한 글자로 신학하기」, 「두 글자로 신학하기」, 「그림으로 신학하기」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교회 다시 살리기」, 「작은 교회가 답이다」, 「생명의 해방」 등이 있다.

켄 로치 감독 <빵과 장미> 생존권 만큼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도 중요



이경순
명예위원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1만5천명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벌인 시위에서 유래됐다. 이들은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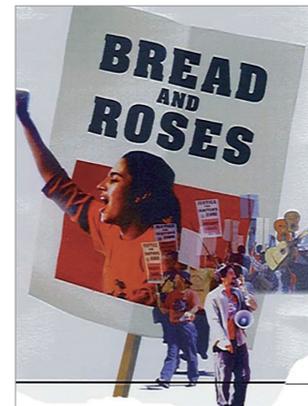
1995년 5월 캐나다 퀘벡시에서는 8백여명의 여성들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며 10일 동안 '빵과 장미의 행진'을 펼쳐 요구사항의 70%를 정책에 반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110년이 지난 21세기에도 '빵과 장미'는 한결같이 여성운동의 상징으로 회자되고 있다.



켄 로치(Ken Loach 1936~)는 영국의 대표 영화 감독으로 인권 문제 등 사회주의 리얼리즘 영화의 대가이다. 세계 최고의 영화제인 칸 영화제에 역대 최대인 14회나 초청 받아 황금종려상(대상) 두 번, 심사위원상(2위)은 세 번 수상한 거장이다.

켄 로치 감독은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룬 자신의 영화에 여권운동의 상징 <빵과 장미>를 제목으로 붙였다. <빵과 장미>라는 제목에 걸맞게 영화의 주인공들은 풍요의 상징인 미국 로스앤젤스의 최고소득 변호사와 펀드매니저가 모여 있는 고층 건물에서, 그들과는 정반대로 어렵게 살아가는 청소부들이다.



빵과 장미
Bread and Roses 2000
제작 레베카 오브라이언
감독 켄 로치
출연 필라르 파디아, 에드ريان 브로디,
엘피디아 칼리로
장르 드라마
제작국 스위스

멕시코에서의 힘든 삶을 피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젊은 여성 마야는 청소 용역회사에 취직한다. 마야의 언니 로사는 동생을 취직시키기 위해 중간 관리자에게 성상납까지 하지만, 중간관리자는 마야를 취직 시켜준 댓가로 1개월분 급료를 가로채간다.

이 회사의 근로조건은 무척 열악하다. 그럼에도 청소부들 대부분이 남미에서 온 밀입국자여서 노조도 만들 수 없다. 이 회사에 노동운동가 샘 사피로가 청소부 명단을 훔치러 들어왔다가 경비원에게 들켜 쫓기게 되자, 마야가 청소 도구 쓰레기통 안에 샘을 숨겨준다. 마야와 로사를 만난 샘은 청소부들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고 선동한다. 청소부들은 샘의 지도에 따라 시위를 벌인 끝에 어렵게 임금인상을 쟁취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야는 멕시코로 추방된다. 그래도 마야는 멕시코를 떠나올 때와는 달리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명분을 얻고 돌아간다.

이 영화에 출연했던 실제 청소부이자 노조 간부인 마이론 파에스는 "영화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빵과 장미>의 영화 촬영이 끝난 직후 실제로 LA의 청소부들은 거리 시위에 나서 25%의 임금인상을 얻어냈고, 뒤이어 LA의 호텔 노동자들도 단결해서 같은 성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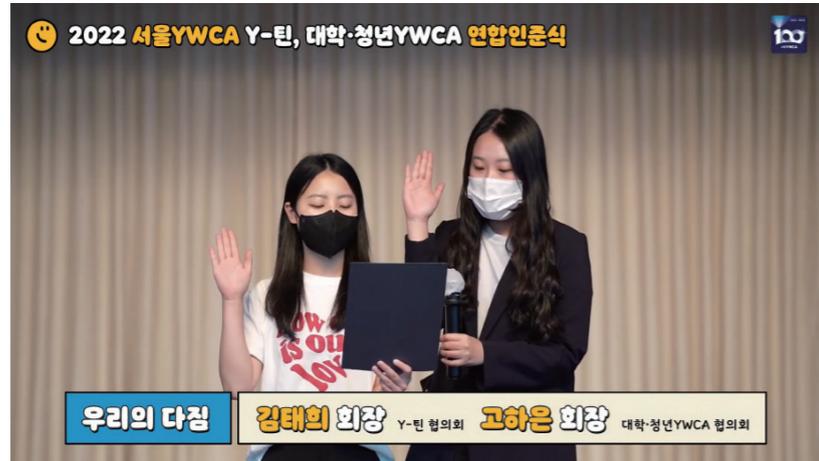
이 영화에서 '장미'는 사치스러운 게 아니다. 이 청소부들이 얻고자 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다. 자존심과 명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켄 로치 감독이 이 영화에서 말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 본문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Y-틴, 대학·청년YWCA 연합인준식



서울Y는 5월 21일 Y-틴, 대학·청년YWCA 연합인준식을 유튜브 라이브로 열었다. 13개의 Y-틴과 4개의 대학·청년YWCA 동아리, 지도교사, 총 198명이 참여했다. 서울Y 랜선 탐방과 청소년팀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비 준비하시니'라는 제목의 최충만 목사 설교, 이천양정여중 Y-틴의 워십, 한미미 청소년팀 위원의 비전특강 'YWCA 정체성과 비전교육을 통해 평화를 이야기하다'가 이어졌다.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는 못했지만 (사)서울YWCA 소속으로 인준받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으로 인준장, 임명장, 지도교사 위촉장, 장학증서 수여식을 함께하며 응원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 이번 인준식을 계기로 Y-틴, 대학·청년YWCA 청년이 Y 회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해나가길 기대한다.

신입위원훈련

“정부가 주도한 줄 알았던 많은 일을 서울Y가 시작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런 서울Y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울Y는 5월 28일 2022 신입위원훈련을 열었다. 온라인으로 모인 7명의 신입위원들은 서울Y의 역사, 비전과 사업에 대하여 이해하고, 소감과 다짐을 나누며 Y 자원활동가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창립 100년의 해를 맞아,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이 될 신입위원의 생명력 넘치는 활약을 기대한다.



노원

스마트융합 콘텐츠메이커 양성과정 개강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5월 23일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1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융합 콘텐츠메이커'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8월 26일까지 코딩, 디자인, 3D펜·프린팅, AR/VR, 영상편집 등 총 320시간에 걸쳐 4차 산업 전문교육 및 취업·소양교육, 현장실습, 잡매칭데이 등이 진행된다.



영등포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개강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5월 30일 여성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전직특화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사업의 일환으로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현재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료 이후에는 취업연계가 가능하다.



누리봄

가족문화활동

누리봄은 5월 1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가족문화 활동 '박물관이 살아있다'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약 2년여 만에 누리봄 입소자, 주거지원 입주자, 자조모임 참여자 80여 명이 함께하며 소통했다. 박물관을 돌아보며 역사의 소중함과 올바른 역사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강남

청소년 진로 연합동아리 발대식

강남청소년수련관은 5월 14일 청소년 진로 연합동아리 '드림ON' 발대식을 열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관내 소속 7개 자치단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연합으로 진행했다. 관계 형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동아리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팀빌딩 활동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수련관 자치단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흥미롭고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가길 기대한다.



봉천

내가 그리는 우리마을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20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봉천종합사회복지관, 행운동 까치어린이공원, 행운동 글빛정보도서관 총 3곳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가 그리는 우리마을'을 열었다. 지역주민이 직접 제출한 우리마을 4행시·그림 전시회, 바자회, 소원권 만들기, 데칼코마니 그림 그리기 등을 진행했으며, 총 260명이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첫 절기행사로 지역주민이 이웃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이었다.



창립 100년 중보기도회

서울Y는 창립 100년을 맞이하여 중보기도회를 엽니다

- 일시 7월 28일(목) 11:00
- 주관 봉천종합사회복지관
- 문의 02-870-4400

창립 100주년 미래포럼

서울Y는 기독교여성시민운동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미래포럼을 엽니다.

집담회 형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제 서울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 100년,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다시 공동체를 외치다
- 일시 7월 14일(목) 14:00-16:00
- 참여방법 유튜브, 현장참여(서울YWCA 강당)
- 문의 02-3705-6097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프로그램

국제운동팀은 여성청년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평화 실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여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일시	주제
7월 13일(수) 18:00-20:00	기후위기를 해결할 여성리더십 아테나 페렐타 (A Caring Economy 저자)
8월 24일(수)	Act, right now! 기후위기와 싸우는 우리의 자세
9월 14일(수) 18:00-20:00	여성성기절제(FGM)를 멈추기 위한 우리의 연대가 필요하다 Nimco Ali (The Five Foundation 대표)
10월 12일(수) 18:00-20:00	이라크에서 미얀마까지 전쟁도구가 된 여성의 몸 Christina Lamb (관동당한 몸 저자)

- 참가 신청 링크 <https://bit.ly/3vjBxum>
- 문의 02-3705-6047



「살롬, 페미니즘입니다」 출간 기념 북모임 개설을 위한 책 지원

서울Y가 출간한 기독교 페미니즘 입문서 「살롬, 페미니즘입니다」를 함께 읽고 북모임을 할 수 있도록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일정 상시 모집
- 대상 교회, 소모임, 기독교 동아리 등 10팀
- 방법 - 신청한 각 모임에 도서 제공
- 인증사진과 북모임 후기를 패들렛에 공유
- 공유 후기는 카드뉴스로 제작·확산
- 문의 02-3705-6070



신청하기



스포츠센터 오픈 클래스

프로그램	일시
굽은 어깨 통증 완화를 위한 소도구 필라테스	8월 30일(화) 18:30-19:20
저녁시간 힐링을 위한 요가	8월 31일(수) 18:30-19:20

- 참가비 3천원
- 문의 02-3705-6030, 6032
- * 신청인원 10명 이상 시 개설

신규프로그램

과정명	교육기간
방과후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8월 23일(화)-10월 21일(금) (월-금) 14:00-18:00 *직종설명회 7월 29일(금) 14:00

- 문의 02-858-4514

노원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폐업(예정)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합니다(교육비 전액 지원)

과정명	일정
보험총무사무원 양성	7월 18일(월)-8월 16일(화) (월-금) 9:00-18:00
요양보호사 양성	8월 29일(월)-10월 17일(월) (월-금) 9:00-18:00
약국행정사무원 양성	8월 29일(월)-10월 27일(목) (월-금) 14:00-18:00

- 문의 02-951-0187

2022
신혼부부학교

예비부부 또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를 초대합니다

2022년 9월 24일(토), 서울숲 야외무대

신혼부부 갈등해결을 위한
슬기로운 소통 솔루션 특강

에코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서울숲 셉템정원에서
양코르 웨딩스냅
*포토백제사진파일 제공

신혼부부
행복상자 선물

2022년 서울숲에서
신혼부부 100커플과 함께하는 즐거운 소통
“신혼부부학교”에 초대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문의
02-3705-6034

신혼부부학교
since 2009

CALENDAR

2022 **7**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1	2 · 그린Y 정기모임 13:00 · 싱크머니 정기모임 (16일) 13:00
--	--	--	--	---	--

4	5 위원회 재정부 11:00	6 · 미디어모니터단 회의(20일) 19:00	7 위원회 큰장날준비 14:00	8 · 누리봄 가족캠프 '여름아 반가워'(~9일) · Y-틴 C.A(정신여중) 13:40 · Y-틴 C.A(경기여고) 14:10	9 월례회·재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산후조리사·간병사(온라인) 10: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23일) 10:00 · 생활돌보미 보수교육 10:00
---	------------------------------	------------------------------	--------------------------------	--	--

11 위원회 역대이사 11:00	12 이사회 10:30 · 정책워크숍 13:30	13 · Y-틴 C.A(명지고) 14:20	14 · 창립 100주년 미래포럼 14:00	15 위원회 강남Y 11:00	16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대학·청년YWCA 임원협의회 10:00 · 그린Y & 온새미로·울력 회원 멘토링 13:00
--------------------------------	---	----------------------------	-----------------------------	-------------------------------	--

18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19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20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21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10:00	22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3:30	23 위원회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13:00
---------------------------------	---	--	--	-------------------------------------	--

25 위원회 봉천Y 11:00	26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간병사(~27일) 10:00	27 월례회·재교육 요양보호사 16:00	28 창립 100년 중보기도회 11:00	29	30 · 소리모아 여름공연 · 강남 청소년 Online Show 음악중심 촬영
-------------------------------	---	-------------------------------------	----------------------------------	----	---

CALENDAR

2022 **8**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1	2	3	4	5	6 · 전국 Y-틴 회원대회 · 싱크머니 정기모임 (20일) 13:00
---	---	---	---	---	---

8	9	10	11 ·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캠프	12	13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 Y-틴·대학청년YWCA 연대토론회 13:00 · 강남 청소년 Online Show 음악중심 언택트 축제(~22일)
---	---	----	--------------------------	----	---

15 광복절	16 위원회 홍보출판팀 11:00	17	18	19 · Y-틴 C.A(정신여중, 26일) 13:40 · Y-틴 C.A(경기여고, 26일) 14:10	20 · 대학·청년YWCA 임원협의회 10:00 · 그린Y & 온새미로·울력 회원 멘토링 13:00
------------------	---------------------------------	----	----	--	---

22	23	24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간병사(~25일) 10:00 · Y-틴 C.A (명지고) 14:20 · Y-틴 C.A (이화여고) 14:20 · 미디어모니터단 회의 19:00	25 월례회·재교육 요양보호사 16:00	26	27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13:00
----	----	--	-------------------------------------	----	--------------------------

29	30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 소도구 필라테스 오픈 클래스 18:30	31 · 저녁요가 오픈 클래스 18:30
----	---	---------------------------

(사)서울YWCA 창립 100주년 기금 후원

이웃의 내일을 밝혀 주세요



힘들고 지칠 땐 작은 빛 하나에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내일을 밝혀주세요

서울YWCA 나눔 100년

희망을 전하는 내일 빛이 되어주세요

Y 기금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 자립준비 교육 (금융·진로·인문학교육 등)
- 1:1 멘토링 (정서적 지지·일상생활 가이드)
- 장학금·생활안정자금 지원
- 법률 자문 연계

W 기금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

- 가정폭력피해여성 공동작업장 상시판매소 지원
- 가정폭력피해여성 직업훈련
- 가정폭력피해여성 아동 생활 지원

C 기금

기후위기 재난피해 빈곤노인 지원

- 축한·축서기 냉난방 물품, 전기·가스요금 지원
- 건강키트, 영양식사 제공
- 기후재난 긴급지원 (의료품, 생존기금 등)

A 기금

서울YWCA 후원

- 서울YWCA 고유 목적사업 후원 (여성인권·기후위기대응·청소년 지원사업·평화운동 등)
- 지속가능한 서울YWCA를 위한 후원

후원금 농협은행 317-2021-0710-91 문의 02-3705-6034
입금계좌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캠페인 소개
영상 보기



100년 후 서울Y를 위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조연신 부회장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회원모금분과 위원장

“내일빛 캠페인의 ‘내일빛’은 ‘나눔으로 우리 이웃의 내일을 비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불빛도 큰 위로가 되고, 다시 걸을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처럼 창립 100주년 기금을 통해 우리 이웃도 다시 시작할 꿈과 용기를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 서울Y가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세워진 서울Y가 많은 선배님들의 기도와 헌신, 후원으로 성장해 온 것처럼 창립 100주년 기금이 서울Y의 다음세대를 위한 씨앗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시민단체 서울YWCA가 시민들에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속가능하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서울Y 나눔의 씨앗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를 품는 울창한 숲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준비한 사람들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회원모금분과

위원장	조연신
위원	자원활동가 김명희 나순복 이옥희 이지선 전현숙 조종남 현명금 황혜진
실무활동가	김경화 민혜경 우영숙 이종미

후원 중간 경과 보고 (2022년 6월 15일 기준)

후원기간 2021년 11월 9일-현재

후원 누적액 총 226,730,000원

Y 기금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19,800,000	W 기금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 15,000,000	C 기금 기후위기 재난피해 빈곤노인 지원 16,500,000	A 기금 서울YWCA 후원 175,430,000
---	--	--	---

내일빛 사람들

창립 100주년 기금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 바로 가기

서울YWCA 창립 100주년을 수놓는 내일빛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나눔으로 이웃의 내일을 밝힌 선한 사람들을 지금 만나보세요!

*** 후원 전체 명단 (2022년 6월 15일 기준)

개인				단체	위원회
강민아	권도웅	김경화	김명희	꿈이있는교회	누리봄위원회
김미현	김선덕	김선자	김숙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봉천종합사회복지관위원회
김순임	김양선	김영심	김우녕	정동제일교회	여성참여위원회
김은희	김재신	김정순	김현일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위원회
김 형	김혜옥	나미정	민혜경	한국직업능력진흥원	회원활동위원회
민홍숙	박두영	박미용	박순예		
박위자	박정희	박진선	배은경		
백향덕	송길례	양선희	오점희		
우영숙	원영희	윤경임	윤상은		
이강희	이경연	이명순	이연배		
이옥희	이유림	이종미	이주영		
이필영	이행자	전현숙	정수경		
정영룡	조연신	조종남	차귀숙		
최 불	최수경	최화순	한혜영		
황성연					

**후원자
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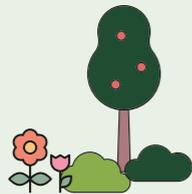
- 후원증서(기부금영수증) 발급
- 고액후원자 감사패 증정
- 100만원 이상 후원자
 - 홈페이지 내일빛 사람들 등재
 - 후원감사 선물 증정
- 기부금액 서울Y 도너월 합산 반영

*** 5-6월 내일빛 사람들

<p>강민아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p>  <p>서울YWCA 창립 100주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빛과 함께 시작합니다</p>	<p>김미현 서울YWCA 본부 부장</p>  <p>100년을 함께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100년도 주님께 맡깁니다. God bless you!</p>	<p>김선자 서울YWCA 명예이사</p>  <p>서울Y 100년을 축하합니다. 창조의 섭리와 은혜의 질서를 따라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내 사랑 Y여 영원하라~ 기도합니다</p>
<p>김정순 서울YWCA 위원</p>  <p>사랑하는 서울YWCA의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p>	<p>김혜옥 서울YWCA 본부 국장</p>  <p>창립 100주년! 서울YWCA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절제를 통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p>	<p>민홍숙 서울YWCA 명예이사</p>  <p>100년의 무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Y가 되기를 소망합니다</p>
<p>박정희 서울YWCA 증경회장</p>  <p>한국 최초 여성단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YWCA의 새로운 100년을 축복합니다.</p>	<p>배은경 서울YWCA 이사</p>  <p>지난 100년 동안 서울Y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백년을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p>	<p>이옥희 서울YWCA 이사</p>  <p>초심을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의 빛이 되는 공정과 사랑의 Y가 되기를 소망합니다</p>
<p>전현숙 서울YWCA 이사</p>  <p>감사한 지난 100년. 기대되는 다음. 100년 시대소명에 응답하는 YWCA 되소서</p>	<p>차귀숙 서울YWCA 증경회장</p>  <p>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친란한 Y의 새 역사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베스의 기도처럼 더욱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기성과 힘,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한 Y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p>	<p>최봄 서울YWCA 본부 국장</p>  <p>창립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서울YWCA, 새로운 100년에도 계속되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p>
<p>최화순 서울YWCA 위원</p>  <p>YWCA 창립 100주년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p>	<p>황성연 서울YWCA 이사</p>  <p>100년을 함께하신 하나님, 100년을 함께하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p>	<p>누리봄 위원회</p>  <p>서울Y 100년을 누리봄가족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서울Y를 통해 흘러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p>

창립 100주년 회원건기대회
후원 감사합니다

- | | |
|---------|---------|
| 김경화 | 김선희 |
| 김양선 | 김옥매 |
| 김정옥 | 민혜경 |
| 박미자 | 박현숙 |
| 배은경 | 안경자 |
| 우영숙 | 유연숙 |
| 육순연 | 이명숙 |
| 이민정 | 이선미 |
| 이순우 | 이영희 |
| 이용재 | 이유림 |
| 이정수 | 임정훈 |
| 전현숙 | 조점순 |
| 최진영 | 최한나 |
| 최혜란 | 한혜영 |
| 여성참여위원회 | 평생체육위원회 |
| 홍보출판위원회 | Y도배사모임 |
| 유한킴벌리 | 홍천섬유 |



서울YWCA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

우리나라 최초의 간병사 교육·양성 기관인 서울YWCA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댁으로 파견하여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 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어르신
내 용	신체활동·일상생활·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간병 서비스
근무 시간	• 오전·오후(3-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 9-18시 (8시간) 출·퇴근 서비스 • 월-토 (24시간) 입주 서비스

※ 요양보호사·간병사 수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02-855-8826 / 010-2847-8826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회원을 모집합니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7월 21일(목) 10:00-18:00	3만원
다누리 가사돌보미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여성		
아기돌보미	63세 이하 여성	7월 22일(금) 13:00-17:30	4만원
세이프맘			
간병사	65세 이하 여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7월 26-27일(2일간) 26일(화) 10:00-16:00 27일(수) 13:30-17:30	5만원
가사간병사		8월 24-25일(2일간) 24일(수) 10:00-16:00 25일(목) 13:30-17:30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2



1922-2022
100
서울YWCA

서울 YWCA 회원이 되어주세요

2022년,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여성과 함께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회원 구분

구 분	회 비
월 C M S	월 10,000원부터 직접 금액 지정
어린이·Y-틴	5,000원
대 학 생	15,000원
일 반 · 회 우	30,000원
평 생	1,500,000원 (회원증모기간 내 1,000,000원)
단 체 (기 업)	150,000원부터

회원증모 기념품

장바구니
(어린이·Y-틴, 대학생 제외)

입금 계좌

농협 317-2021-0706-6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회원가입
바로 가기



회원증모
영상 보기

문의 02-3705-6008

기간
5월 16일(월)
|
7월 22일(금)

회원 소식

양미리수 시설운영사업팀 위원
4월 27일 소천

이은숙B 청소년팀 위원
5월 27일 시모상

이지선 이사·평생체육위원회 부위원장
6월 10일(토) 부친상

김해정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
아들 장지수 씨
6월 18일(토) 저녁 6시 30분
아펠가모 선릉에서 결혼

김보민 생명운동팀 간사
7월 30일(토) 오후 3시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결혼

복멘토링프로젝트에 함께할 복멘토를 기다립니다

복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705-6034

후원 감사합니다



「a place to rest (안식처)」

2022. 캔버스에 아크릴화, 91.0x116.8cm

이현순 작가가 3월 21일 서울Y에 작품
「a place to rest (안식처)」를 기증했다.
작품은 마음의 안식을 얻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며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내면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작가 소개

이현순

- 2012 <제5회 아름다운 선물전> 유나이티드갤러리
- 2013 <평창동계올림픽 발전전> 예술공간
- 2013 <인사동사람들> 라메르 갤러리
- 2016 <제14회 미의식의 표상전> 하나로갤러리
- 2017 <다르기전> 광주비엔날레
- 2017 <반디아르 1회전> 경인미술관
- 2017 <그림같은 이야기 이야기 같은 그림> 예총화랑
- 2018 <반디아르 2회전> 조형갤러리
- 2019 <경의선 책거리> 문화산책 갤러리
- 2019 <예술회관 부스전>
- 2022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개인전

IOPE



193만 번의 경험, 눈으로 확인한 주름 개선 효과 레티놀 엑스퍼트 0.1%

감사합니다

2022년 4월-5월

특별후원



일시후원

- 여성주의연합예배 후원 여성참여위원회 최 불 황성연
- 장학금 차귀숙
- 청년활동 후원 최충만
- 안윤주
- 핸드차임봉사단(대표 : 홍근표 명예이사)

일반후원



강명희 강서현 고려옥 고선혜 광민규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병호 김상순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용관 김윤희 김인복
 김해정 김현경 김 형 김효신 나순복 민혜경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서해영 석성욱 송순옥
 심영자 안윤주 양수경 양진화 오세연 오준호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윤혜선 이애진 이옥희 이용재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종미 이행자 이홍자 임중현
 장경미 장경세 장민경 장수자 정문옥 정석용 정승원 정은숙
 조성환 조연진 조종남 지복임 채재호 최 불 최은정 최정우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홍근표

재능 기부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 2022년 5·6월 회보 '예술과 여성' 칼럼 기고

복멘토링 후원



김나은 김민아 김상희 김선자 김성연 김은순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혜경 나순복 남은희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재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송태연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진화 염미연 염현경 우영숙 율요카페 이명아 이수미
 이연배 이옥희 이윤선 이재림 이푸른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나미 조민형 최동수 최 불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한혜영
 홍화정

월 CMS 후원



김윤우 김윤익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명숙 강문숙
 강민아 강성길 강수미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유민
 강윤정 강인지 강일훈 강진희 강창석 강충모 강하자 강형식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선자 고성희 고유나 고은경 고은비
 고은정 고은정 고은희 고인미 고재옥 고현진 고희애 고희준
 공명주 공우재 광동윤 광미숙 광민정 광지영 광지훈 구미영
 구범서 구수영 구연경 구오영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성준 권순철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혁준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인숙 길중선 김경금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아 김경원
 김경일 김경일 김경화 김관옥 김관채 김광수 김귀숙 김규진
 김기연 김기옥 김기환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대진 김도근
 김동건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동희 김두희 김라엘 김량순
 김말녀 김명후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선 김미재

김미정 김미현 김미혜 김민경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희
 김병호 김보라 김보미 김보민 김보현 김복자 김봉근 김봉희
 김석한 김선경 김선덕 김선리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국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세웅 김세진 김소망 김소영 김소은 김소인 김수언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김순남 김순연 김순연 김순임 김순자
 김순정 김승찬 김시은 김양선 김양숙 김에스터 김연경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희 김영심 김영옥 김영주 김영주
 김영해 김예지 김옥민 김용관 김용민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진 김윤나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익동 김자희 김재경 김재성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정구 김정기 김정님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연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현 김정화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용 김종운 김종진 김종하 김주나
 김주한 김준경 김준희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희 김 진 김진숙 김진숙 김진주 김진향 김진호
 김창배 김창섭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현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진 김태한 김통범 김평배 김한나
 김해정 김행미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중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빈
 김형숙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김혜성 김혜정
 김혜진 김호진 김홍우 김화숙 김화자 김호숙 김효은 김희성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선화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상화 남윤경 남희숙 노남례 노미선
 노수연 노정자 노혜환 노희수 당효성 동지현 류소리 류종철
 류 혁 류형정 마초희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문미현
 문상규 문현숙 문형규 민경술 민동성 민명자 민선기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갑년 박갑규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일 박광택 박근화 박근희
 박남주 박노영 박명순 박명윤 박문성 박미경 박미경 박미란
 박미영 박병주 박상건 박상영 박상정 박상태 박선미 박선영
 박선정 박선주 박성주 박성호 박성희 박소영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소예 박순주 박승호 박시윤 박신자 박신환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슬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인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현 박주희 박지영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아 박진용 박찬인 박초순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현선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자
 박휴영 박희봉 박희숙 박희정 방윤옥 방윤우 방은영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윤주 배은경 배은진 배정미
 배정숙 배진영 배호성 백미리 백민경 백민주 백옥선 백인성
 백정화 백 준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서근배 서미화 서반석 서빛나 서상희 서영미 서옥덕 서은경
 서정순 서정연 서정희 서지영 서춘자 서현옥 서현정 서효옥
 석상화 석성욱 석영미 선점환 성경란 성덕화 성연석 성윤수
 성은숙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호숙 손승혜 손승희 손예림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선희 송세실 송옥의 송윤주
 송이라 송재임 송정민 송종우 송창은 송태연 송하윤 송혜승
 송효수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민자 신상용 신상우 신승우
 신승주 신연식 신용자 신지숙 신지윤 신정희 신총섭 신현미
 심경호 심다영 심영란 심재원 심정자 안두환 안병수 안성포
 안성훈 안승계 안영신 안영철 안영호 안외순 안유진 안윤희
 안정국 안정희 안주희 안지혜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한나 양기혁 양명옥 양세진 양수정 양여경 양영순 양영애
 양영호 양정은 양종숙 양진영 양현옥 엄경자 엄수길 여명진
 염명경 염문철 염미형 염용희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오경아
 오미영 오소연 오영선 오영아 오은주 오점희 오지영 오형래
 온기석 왕정환 왕청식 용윤희 우수경 우승현 우영숙 우은미
 우재하 우정희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유철 원혜숙 위정선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동미 유명숙 유문형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승연 유연숙 유예목 유은경
 유은정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선 유정순 유정환 유주빈
 유지현 유진선 유현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교희 윤동연
 윤동원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방현 윤상은 윤서희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수진 윤순민 윤은희 윤장범
 윤재복 윤재숙 윤정향 윤정화 윤지원 윤 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옥 이경자 이계숙
 이광희 이규택 이금재 이금희 이기경 이기쁨 이기화 이나경
 이남연 이돈행 이동숙 이동오 이동윤 이동현 이명순 이명중
 이명혜 이명호 이미숙 이미자 이미진 이민석 이민선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상명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서현 이선덕 이선미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영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소진 이수범 이수빈 이수빈 이수연
 이수진 이수진 이숙영 이순영 이소숙 이순우 이순천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이승한 이승현 이승희 이시현 이신현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리 이양출 이연서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희 이예순 이옥경 이용숙
 이용호 이원애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재강 이재건 이재경 이재욱
 이재정 이재천 이재혁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환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이좌녕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이준혜 이증자 이지선 이지영 이지운 이지현 이지현 이진규
 이진선 이진아 이진이 이창준 이창희 이채진 이춘옥 이택완
 이푸름하 이한기 이한성 이 행 이행남 이행자 이현국 이현심
 이현아 이형숙 이혜경 이혜규 이혜영 이혜원 이혜정 이혜주
 이혜진 이혜진 이희남 이희전 인치남 임경희 임광택 임등자
 임병남 임병일 임성은 임성준 임성희 임연수 임완철 임재연
 임재영 임정자 임정화 임정훈 임주경 임준호 임중현 임지현
 임지현 임현정 임현주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선희 장수용 장수용 장순복 장승화 장용익
 장윤정 장주연 장철승 장한수 장현주 장혜미 장혜숙 장혜영
 전덕기 전민구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영화 전유오 전윤숙

전은경 전은미 전은아 전인옥 전재수 전행옥 정경문 정경미
 정경옥 정경원 정동신 정명숙 정미선 정민선 정민선 정상미
 정상아 정새와 정서진 정선주 정선화 정선희 정소희 정수경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연수 정영룡 정영희 정예술
 정유리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애 정정일
 정종화 정종화 정준선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한솔 정해윤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승
 정혜윤 정화자 제오복 조규성 조길수 조남억 조명희 조미선
 조미숙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호 조세환 조연신 조예은
 조용선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정훈 조준하
 조중희 조진영 조진희 조하은 조혜성 조혜전 조호선 조홍신
 주명애 주민숙 주소은 주영숙 주우철 주지성 주형로 지경표
 지 영 지영찬 지 인 진영선 차경희 차지혜 채송화 채송화
 채재호 채정림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민 최명진 최명희
 최문정 최민호 최 봄 최봉수 최서래 최선미 최수경 최수희
 최순자 최순태 최승동 최승미 최승민 최신지 최영실 최영아
 최영주 최용운 최운영 최유정 최윤서 최윤주 최윤희 최은주
 최재국 최정희 최중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희
 최현경 최현경 최현경 최현주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정미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규철 한규철 한다정 한민희 한성우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재희 한 정 한정신
 한정우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현식 한혜정 함봉진 함화순
 허경희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은순
 홍경화 홍성희 홍수연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지애 홍진기 홍학희 홍현표 홍호성 황경희 황명숙 황미영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선영 황순분 황어진 황왕연 황용숙
 황용하 황윤희 황은경 황주혜

(주)사공디자인 (주)제이티 중앙이엔씨 (주)체험앙

깊어지고 길어지는 주름 꼬리의 솔루션
 안티에이징의 기초를 바로잡다

에이지 포커스 프라임 링클 포 올 세럼 & 아이 포 올 크림



ISAKNOX

후원 계좌 | 농협 317-2021-0710-91 | 문의 02-3705-604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창립 100년 비전선언문

1922년 서울YWCA 기독교여성들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한국 여성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며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건설하는 마중물이 되었다. 서울YWCA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를 돌보며 살리는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의 역사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위기, 양극화, 사회갈등의 위기와 문명사적 전환기 앞에서도 서울YWCA는 시대의 위기를 돌파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보기 삼아 도전적 의지와 책임감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서울YWCA는 창립 100년을 맞아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선포하며 세상의 모든 여성과 함께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Y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 청년정신으로! 세상을 살리는 Y

W 기독교여성의 확장성, 사회적 영성으로! 세상을 살리는 Y

C 생태계의 회복, 더불어 살아감으로! 세상을 살리는 Y

A 정의·평화·생명 세상, 꿈꾸는 여성들과 연대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Y

서울YWCA의 새로운 비전은 사회적 책임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영성, 사회의 변화를 상상하고 만드는 운동성, 더 나은 세상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사회혁신과 변화를 위해 5대 목표를 수립한다.

하나, 기독교 정신을 사회적 언어로 소통하며 실천한다.

하나, 회원·시민과 함께 기독교여성주의, 기후 위기대응, 평화 운동을 전개하며 사회 변화를 이끈다.

하나, 서울YWCA 정체성 강화와 공유를 위해 중장기 고도화 사업에 주력한다.

하나,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포용적 조직문화를 확립한다.

하나, 세대, 성별, 지역 차이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민사회운동 처음학교로 자리매김한다.

서울YWCA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여성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며, 정의와 평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2022. 1. 20.
사단법인 서울YWCA

2022년 서울YWCA 비전사업

서울YWCA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

서울Y는 1만명의 여성활동가와 함께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2022년은 22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평등을 넘어 평화로

- 성차별 미디어 아카이빙
-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가이드 제작
-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프로그램
- 미얀마 여성 역량강화 프로젝트
- 북한이탈청소년 영어교육 및 평화리더십 프로그램
- Y-틴 평화아카데미
- 청소년 평화 걷기
-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 이야기마당
- 디아스포라 여성청년과 함께하는 평화의 밥상
- 시민건강교실 - 여성 생애주기별 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



- 기후위기 대응 지구사랑 부부 챌린지
- 재소 청소년과 함께하는 '살고 살리는' 멘토링
- 서울YWCA 창립 100년 기금 모금 내일빛 캠페인
- NO 그린워싱! 기업 친환경성 평가 프로젝트
- 지구를 치유하는 가치 소비 확산 프로젝트
- 건강용품 소비자 안전 리포트
- Y-틴, 대학청년Y 회원 멘토링
- 돌봄과살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2022 서울YWCA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



- 목회자를 위한 성평등 교회 운영 매뉴얼 제작
- 교회 리더십을 위한 페미니즘 교육
- 기독교시민아카데미 개설
- 생애주기별 여성을 위한 예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박에스더

한국 여성운동의 산파
(1902-2001)

“YWCA는 건물이 아닙니다. YWCA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중요합니다.”
- 박에스더 선생의 생애 「풍요한 삶」 p.133

평생 여성운동과 한국YWCA 발전을 위해 헌신한 박에스더 선생.
1902년 평남에서 태어난 선생은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이민,
대학을 졸업한 후 하와이Y, 미국YWCA연합회 국제부에서 일하던 중
1947년 미국Y 상호협조부 과장으로 한국Y 주재 고문총무로 임명받았다.

광복 후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초창기 한국 여성사회운동을 이끌고
한국Y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지방Y를 신설했으며,
현재 명동에 있는 YWCA 회관 건축에도
온 힘을 기울였다. 주한 외교관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을 널리 알리고 해외로부터 원조를
얻어내는 등 민간의외교관 역할도 감당했다.

YWCA와 결혼했다며 평생 독신으로 산 선생은
1980년 하와이 양로원으로 떠나
향년 99세로 세상을 떠났다.
대통령 공익포장(1966), 국민훈장 석류장(1972) 등을 받았으며
한국Y는 박에스더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3년 한국여성지도자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서울YWCA회관 준공 기념 봉헌식(1959)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박에스더 선생

(사)서울YWCA 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스포츠센터 수영·헬스·피트니스 3705-6030
돌봄과살림센터 가사돌봄미·산후조리사·아기돌봄미 3705-6013~4
간병사 3705-6071~2
재가장기요양기관 855-8826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or.kr 870-440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www.ywcajob.or.kr 858-4514~5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 951-0187~8
강남청소년수련관 www.gangnamyc.or.kr 544-9725~6
누리봄 www.bongchun.or.kr 888-7983